

제7회 동남아시아 한글학교협의회 교사 연수 강의안

[기조강연 및 강의 1, 강의 2]

학습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어의 발음과 발음 교수에 대한 관견

박기영

1.

국어 교육이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것을 학습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우선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교육에 들어가기 전까지 언어 습득 혹은 언어 발달의 차원에서 발음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야에는 매우 다양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모국어의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발음의 습득은 어휘, 형태, 통사 영역에 비해 이른 시기에 완성된다고 언급되어 왔다.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은 3세를 기준으로 하여 동시적인 습득과 순차적인 습득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듯하다. 3세 이전에 두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동시적인 언어 습득으로 보고 3세 이후에 제2언어를 습득하는 경우를 순차적인 습득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경우에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 특히 후자의 경우 목표 언어가 되는 제2언어의 습득에 제1언어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춘기 시기가 되기 이전에 제2언어로서의 노출 정도가 제1언어에 대한 노출 정도보다 더 커져서 제1언어와 제2언어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은 다시 원래의 제1언어의 발달에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학습자가 학교 교육에 들어가게 된 시점에서의 발음 교육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시기의 발음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론적인 접근 방식보다 좀 더 실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의 미래의 교육 환경과 직접 관련을 맺는다. 즉 학습자가 앞으로 계속 제2언어 환경에서 학교 교육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모국어 환경에서의 학교 교육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태어나면서 학습자가 습득했던 모국어는 다시 제2언어의 위치에 놓이게 되며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의 원리를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제2언어 환경에서 제1언어의 습득과 발달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며 모국어로서의 국어 교육이 가진 성취 기준을 염두에 두고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양자의 공통 분모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한국어 발음

에 대한 지식이다. 어떤 미래의 교육 환경에 놓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든 발음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교수 방식을 덧입힘으로써 발음과 관련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발음 교육의 지식적인 측면을 다루되 국어 문법 교육에서 발음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를 교육 과정을 통해 확인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언어 습득에서의 발음, 발음 교육

(1) 제2언어 습득과 아동

(2) 단일언어 아동과 이중언어 아동의 음운 발달

(3) 학령 전 아동의 음운 처리 과정과 읽기 능력의 상관성

3. 학교 교육에서의 발음, 발음 교육

(1)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개정된 국어과 교육 과정(2011)에서 발음과 관련된 성취 기준만 따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초 1-2학년군 문법 내용 성취 기준]

(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한글 낱자(자모)를 바르게 발음하고 쓰는 것은 소리글자인 한글로 문자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 능력이다. 먼저 한글 낱자의 이름과 모양을 차례로 익히고 자연스러운 순서에 따라 쓰도록 하며, 이들 낱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바르게 쓰고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글에 흥미를 가지면서 한글을 소중히 여기며 문자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초 3-4학년군 문법 내용 성취 기준]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소리대로 표기되는 낱말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과 낱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적어 보기도 하는 활동을 하면서 낱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글 맞춤법의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여러 사례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초 5-6학년군 문법 내용 성취 기준]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져오되, 특히 한글 맞춤법 51-57항에 제시된 혼동하기 쉽고 잘 틀리는 낱말과 한글 맞춤법 41-48항에 제시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자료를 생활 속에서 찾아 탐구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중1-3학년군 문법 내용 성취 기준]

(2) 음운 체계를 탐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국어의 음운 체계를 탐구하면 말소리 차원에서 다른 언어와 대비되는 국어의 특질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말소리와 관련되는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자음과 모음을 그 소리의 성질과 분화 기준에 따라 몇 무리로 나누거나 표로 정리해 봄으로써 국어 음운 체계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고, 모음 길이의 차이로 뜻이 달라진 단어들을 대조해 봄으로써 모음의 길이가 자·모음과 같이 뜻을 구별하는 구실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4) 음운 변동의 규칙성을 탐구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의 원리를 이해한다.

음운 변동은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발음을 위해 음운의 소릿값이 바뀌는 현상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음운 변동의 다양한 사례를 찾아 말소리가 바뀌는 조건과 방향을 탐구함으로써 국어 발음의 원리를 발견하고 올바른 발음의 방법을 스스로 익히도록 한다. 아울러 음운 변동을 탐구하여 발견한 지식이 자연스럽게 표준발음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지도한다.

[고 국어 I 문법 내용 성취 기준]

(10) 음운과 음운 체계를 이해하고 교양 있는 발음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의미를 구분하는 최소 단위인 음운과 그 음운들이 지니는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디로 나눌 수 있는 분절 음운과 나눌 수 없는 비분절 음운을 파악하고 그 체계를 이해한다. 국어 음운 체계의 특징을 다른 언어와 비교하여 자음은 파열음과 파찰음에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구분이 있고, 유·무성의 대립이 없다든지 하는 것도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음운 체계의 이해를 토대로 주변에서 발음 생활을 본받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교양 있는 발음 생활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2) 표준발음 - 우리의 발음을 먼저 진단해 봅시다.

☞ 여기에서는 22개의 문장을 두 번씩 들려 드립니다. 각 문장에는 발음이 틀린 어절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틀린 발음과 올바른 발음을 쓰십시오. 발음을 쓸 때는 표기법에 따르지 말고 <보기>처럼 소리나는 대로 적으십시오.

<보기>

| 녹음된 문장 | 틀린 발음 | 올바른 발음 |
|--------------------|-------|--------|
| 지금부터 전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 전야제를 | 저야제를 |

☞ 귀로 듣고 인지하는 훈련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는 문장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문장을 듣고 틀린 발음을 찾아 쓰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발음을 쓰십시오. 반복해서 들어도 좋습니다.

<답안지>

| 번호 | 틀린 발음 | 올바른 발음 |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4 | | |
| 15 | | |
| 16 | | |
| 17 | | |
| 18 | | |
| 19 | | |
| 20 | | |
| 21 | | |
| 22 | | |

(3) 표준발음법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표준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자음과 모음(제2-5항)

제3장 음의 길이(제6-7항)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눈보라[] | 말씨[] | 밤나무[] |
| 많다[꺄:타] | 멀리[꺄:리] | 벌리다[꺄:리다] |
| 첫눈[] | 참말[] | 쌍동밤[] |
| 수많이[수:마니] | 눈멀다[눈꺄다] | 떠벌리다[떠꺄리다] |

[붙임]

| | | |
|------------|------------|------------|
| 보아 → 꺄[꺄:] | 기어 → 꺄[꺄:] | 되어 → 꺄[꺄:] |
| 두어 → 뒤[뒤:] | 하여 → 해[해:] | |

다만, 오아 → 와, 지어 → 저, 찌어 → 쨌, 치어 → 처

제4장 받침의 발음(제8-16항)

제10항 겹받침 ‘ㄱㅅ’, ‘ㄴㅅ’, ‘ㄹㅅ, ㄴㅅ, ㄹㅅ’, ‘ㅅㅅ’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ㅅ]으로 발음한다.

넋[] 앓다[] 여덟[] 넓다[] 외곶[] 훔다[] 없다[]

(1) 밟다[] 밟지[] 밟는[] 밟게[] 밟고[]

(2) 넓-죽하다[] 넓-둥글다[]

제11항 겹받침 ‘ㄹㄱ, ㄹㅁ, ㄹ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ㅍ]으로 발음한다.

닭[] 닭다[] 늣지[] 젊다[] 읍고[] 읍다[]

맑게[] 맑고[] 엇거나[]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밭 아래 [] 늪 앞 [] 젓어미[] 맛없다[]
 곁웃[] 헛웃음[] 꽃 위[]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 []로도 발음할 수 있다.

제5장 음의 동화(제17-22항)

제19항 받침 'ㄱ,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담력[], 침략[], 강릉[], 향로[], 대통령[]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 백리[], 협력[], 십리[]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 (1) 난로[날 : 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 : 할루] 대관령[대 : 팔령]
- (2)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림끼] 할는지[할른지]

[붙임] 첫소리 'ㄴ'이 'ㄹㅎ', 'ㄹ트'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닿는[], 뚫는 [], 할네[]

- (3) 의견란[] 임진란[] 생산량[] 결단력[]
- 공권력[] 동원령[] 상견례[] 횡단로[]
- 이원론[] 입원료[]

제22항

되어[] 피어[]
 [붙임] 이오[] 아니오[]

제6장 된소리되기(제23-28항)

제7장 소리의 첨가(제29항-30항)

제29항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 흘-이불[] 막-일[]
 샷-일[] 맨-입[] 꽃-잎[]
 내복-약[] 한-여름[] 남존-여비[]
 신-여성[] 색-연필[] 직행-열차[]
 늑막-염[] 콩-엿[] 담-요[]

눈-요기[] 영업-용[] 식용-유[]
국민-윤리[] 밤-웃[]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 야금-야금[] 검열[] 금융[]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설-익다[] 불-여우[] 술-있[]
휘발-유[] 서울-역[] 유들-유들[]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한 일[] 옷 입다[] 서른여섯[]
3연대[] 먹은 옛[]
할 일[] 잘 입다[] 스물여섯[]
1연대[] 먹을 옛[]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6·25[] 3·1절[] 송별-연[] 등-용문[]

3. 발음 교육의 내용

(1) 한국어의 음운

- ☞ 발음의 과정과 발음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 ☞ 한국어의 모음과 자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 ☞ 한국어의 초분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모음

[단모음]

- ☞ 단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단모음 체계

| 혀의 앞뒤 혀의 높이 | 전설 모음 | | 후설 모음 | |
|----------------|-------|------|-------|------|
| | [평순] | [원순] | [평순] | [원순] |
| 고모음 | | | | |
| 중모음 | | | | |
| 저모음 | | | | |

- ☞ 위의 단모음 체계와 나의 발음은 일치하는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이중모음]

- ☞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y계 상향이중모음 : ㅑ, ㅓ, ㅕ, ㅗ, ㅛ, ㅜ

y계 하향이중모음 : ㅚ

w계 상향이중모음 : ㅘ, ㅙ, ㅞ, ㅟ, ㅠ, ㅡ

- ☞ 위의 이중모음 목록과 나의 발음은 일치하는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2. 자음

- ☞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자음 체계

| 조음위치 조음방법 | | 순음 | 치조음 | 경구개음 | 연구개음 | 후음 |
|--------------|----|-----|-----|------|------|----|
| | | 파열음 | 평음 | | | |
| 격음 | | | | | | |
| 경음 | | | | | | |
| 마찰음 | 평음 | | | | | |
| | 격음 | | | | | |
| | 경음 | | | | | |
| 파찰음 | 평음 | | | | | |
| | 격음 | | | | | |
| | 경음 | | | | | |
| 비음 | | | | | | |
| 유음 | | | | | | |

☞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 한국어 자음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 자음 중 조음위치가 두 가지인 경우는?

3. 소리의 길이와 억양

- 초분절음(超分節音): 소리의 길이(장단), 소리의 높이(고저), 소리의 세기(강약)

☞ 한국어는 위에서 언급한 초분절음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가?

(2) 한국어의 음절

☞ 한국어의 음절구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 음절을 구성하는 성분 사이에는 어떤 제약이 있는가?

1. 음절구조

- 한국어에서 가능한 음절구조

- ① 모음 : 아, 야, 에, 와
- ② 자음+모음 : 소, 묘, 개
- ③ 모음+자음 : 약, 옷, 입
- ④ 자음+모음+자음: 밥, 꿀, 맛

2. 음절구조제약

- ① 초성은 'ㅇ'을 제외한 모든 자음이 쓰일 수 있다.
- ② 중성은 단모음이나 이중모음 중의 하나여야 한다.
- ③ 종성은 7자음(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의 하나여야 한다.
- ④ 자음 뒤에 'ㄴ'이 연결될 수 없다.
- ⑤ 'ㅅ, ㅆ, ㅈ' 뒤에 'ㄷ, ㅌ, ㅊ, ㅌ, ㅍ'가 연결될 수 없다.

☞ 이와 같은 음절구조제약 때문에 생기는 음운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한국어의 음운 현상

- ☞ 음운현상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그 분류 기준을 이해한다.
- ☞ 한국어의 특수한 음운현상과 일반적인 음운현상을 이해한다.
- ☞ 한국어 교육에서 우선 학습되어야 하는 음운현상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다.

▪ 음운변동의 유형

대치 : 밥만[밤만] (/ㅂ/이 /ㅁ/이 된다.)

탈락 : 좋은[조은] (/ㅎ/이 탈락한다.)

첨가 : 한여름[한녀름](/ㄴ/가 첨가된다.)

축약 : 농고[노코](/ㅎ/과 /ㄱ/가 축약되어 /ㅋ/가 된다.)

도치 : 뱃복>배꼽, 하야로비>해오라기

- 음운현상은 아니지만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발음 관련 사항
연음법칙, 유성음화

1. 자음에 관한 음운현상

(1) 대치

- ① 비음화: 비음 앞에서 장애음 'ㄱ, ㄷ, ㅂ'는 각각 비음 'ㅇ[n], ㄴ, ㅁ'로 바뀐다.

예) 밤만[밤만], 얻는[언는], 약만[양만]
 일곱 난쟁이[일곱난쟁이], 곧 나온다 [곧나온다],
 비쩍 말랐다[비쩍말랐다]

② ‘ㄹ’의 비음화: 비음 앞에서 장애음 ‘ㄱ, ㄷ, ㅂ’는 각각 비음 ‘ㅇ[n], ㄴ, ㅁ’로 바뀐다.

예) 심리[심니], 상류[상뉴]
 흥련[흥년], 원룸[원눔], 장르[장뉴]

☞ **생각해보기**

‘비음화’와 ‘ㄹ’의 비음화는 같은 현상인가요, 다른 현상인가요?

③ 유음화: 치조비음 ‘ㄴ’가 주위에 있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뀐다.

예) ㉠ 설날[설랄], 실내[실래], 발 냄새[발램새]
 훨훨 날아간다[훨훨라라간다]
 ㉡ 논리[놀리], 분량[불량], 전라도[절라도]

☞ **생각해보기**

㉠의 예와 ㉡의 예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세 가지 정도 찾아 보세요.

④ 조음위치동화

예) 감기[강:기], 옷감[옥감], 있고[익꼬], 꽃길[꼭길],
 젓먹이[점머기], 문법[뭉뻬], 꽃밭[꼭뻬]

⑤ 구개음화

예) 곁이[겨치], 끝이 [끄치], 곧이[고지], 날날이[난나치], 굳히다[구치다]

⑥ 경음화

예) ㉠ 잡고 → [잡꼬], 들고 → [듣꼬], 녹지 → [녹찌]
 ㉡ 남고 → [남꼬], 신고 → [신꼬]
 ㉢ 갈 데 → [갈떼], 먹을 것 → [머글껌], 좋을 대로 → [조을떼로]
 ㉣ 발달(發達)[발딸], 발동(發動)[발똥], 발생(發生)[발쌩]
 cf. 발견(發見), 발병(發病)

☞ **생각해보기**

㉑, ㉒, ㉓, ㉔ 모두 경음화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규칙성을 찾아 보세요.

(2) 탈락

㉗ ㅎ탈락

좋으면 → [조으면], 많으면 → [마느면], 앓으면 → [아르면]

그해 → [그해/그애], 시합 → [시합/시압], 전화 → [전화/저놔]

심하다 → [심하다/시마다]

올해 → [올해/오래], 실험 → [실험/시럼]

㉘ 자음군단순화

(3) 첨가

㉙ ㄴ첨가

(4) 축약

㉚ 유기음화

2. 모음에 관한 음운현상

(1) 대치

㉛ 모음조화

㉜ 반모음화

예) 이기-어 → 이겨, 보-아 → 봐

☞ **생각해보기**

‘이기-어’가 ‘이겨’로, ‘보-아’가 ‘봐’로 되는 것은 축약 현상인가요? 만약에 축약 현상이라면 왜 ‘대치’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했을까요?

(2) 탈락

㉝ ㅡ탈락

예) 끄-어 → 꺼, 따르-아 → 따라, 고프-아 → 고파

④ ㅏ/ㅑ 탈락

예) 가-아 → 가, 만나-아 → 만나, 서-어 → 서, 건너-어 → 건너
내-어 → 내, 지내-어 → 지내, 되-어 → 돼

☞ **생각해보기**

'가-아 → 가', '서-어 → 서'에서 탈락하는 것은 '가, 서'의 '아, 어'인가요? 아니면 '-아, -어'인가요?

⑤ ㅣ 탈락

예) 지-어 → 저[저], 살찌-어 → 살찌[살찌], 가르치-어 → 가르쳐[가르쳐]

☞ **생각해보기**

만약에 'ㅣ 탈락'이라는 모음 탈락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의 예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⑥ w 탈락

예) 보-아 → 봐 → [바], 백화점 → [백카점], 괴롭다 → [게롭따],
괜찮다 → [겐찬타]
썩다 → [센다], 귀엽다 → [기엽따]

(3) 첨가

⑦ y 첨가

예) 내-어 → [내여], 뛰-어 → [뛰여]

(4) 축약

⑧ ㅊ 축약

예) 주-어 → 쥐 → [조], 놔두-어 → 놔뒤 → [놔도]

☞ 위의 규칙은 모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규칙인가?

☞ 한국어의 음운규칙 중 필수적인 규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수의적인 규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국어음운론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음운론의 차이는 무엇인가?

4. 발음 교육의 방법

(1) 발음 교육의 필요성과 목표¹⁾

<필요성>

-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모국어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이다.
- 언어 습득의 과정에서 가장 일찍 굳어진다.
- 발음은 학습 대상 언어의 겉모습이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 한국어의 표기는 기본적으로 형태음소적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 교착어적 특성(어간+어미)을 가진 한국어에서 음운 규칙의 학습은 필수적이다.

<목표>

-

(2) 언어교수법에 따른 발음교육의 위상 차이

(3)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²⁾

- 모국어 : 개별 음소의 상이한 발음, 상이한 음절구조, 상이한 음운현상, 상이한 초분절적 요소(억양, 강세, 장단)
- 연령 : 발음 학습의 임계기(critical period)
- 목표 언어에의 노출 정도 : 같이 생활하는 시간의 양보다 노출의 질과 강도가 중요함.
- 선천적 발음 능력 : 좋은 “귀”를 가진 사람.
- 정체성과 언어 자아
- 우수한 발음에 대한 동기와 관심
- 발음 기관의 개인 차이 : 혀의 길이, 구강 구조 등

(4) 발음 교육 방법³⁾

1. 발음 지도의 과정

- ① 제시 단계 : 학습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소리 및 그 소리의 특징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인지하도록 하는 단계.
- ② 연습 단계 : 학습자가 연습을 통하여 학습 대상 언어의 발음을 모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습득한 발음을 자신의 발음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1) 허용 외(2005: 102) 참조.

2) Brown(2001:348-349) 참조.

3) 허용 외(2005:103-105) 참조.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단계.

- ③ 생성 단계 : 제시와 연습 단계를 통해 습득한 새로운 발음들을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상황에서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발화가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단계.

2. 발음 지도 유형

- 듣고 따라 하기
- 음성훈련 : 각각의 분절음을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 등과 함께 설명해 주고 음성적 환경을 달리하여 사용해 보게 하며, 스스로 그 원리를 발견하도록 한다.
- 문맥에 나타난 최소대립쌍 연습

| 문맥 속에서 최소대립쌍을 제시하는 방법 | |
|-----------------------|-------------------------|
| <동일한 문장 내에서 제시하는 경우> | <두 문장의 동일한 위치에 제시하는 경우> |
| 우리 딸은 딸을 좋아한다 | 공원에 풀/불이 났다 |
| 굴 맛이 꿀맛 같다 | 나는 꿀/굴을 먹었다 |
| 방에 들어가서 빵을 먹자 | 아저씨는 공장에서 종/총을 만든다 |

-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단어(tongue twisters) 연습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이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인가 못 그린 기린 그림인가.
경찰청 철창살은 외철창살이고 검찰청 철창살은 쌍철창살이다.

- 소리 내어 읽기 및 역할극
- 학습자의 발화 녹음하기
- 드라마 더빙하기

3. 발음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한국어 화자들도 무시하는 음의 구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철자법대로 발음하거나 지도하지 말아야 한다.
- 학생들에게 일단 전달된 음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 학생들이 정확한 발음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발음을 연습할 때도 학습자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 학습할 새로운 음을 결정할 때에 발음하기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말고, 전체 음의 체계 속에서 상대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적절한 교육적 표기법과 시청각 보조 자료를 이용한다.
- 표준이 되는 발음을 충분히 들려주어야 한다.

- 간단한 조음법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교사는 음성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5) 억양의 교육

1. 억양의 기능

- (1) 서법에 따른 억양의 실현: -아/어(요), -지(요) 類
- (2) 양태에 따른 억양의 실현: -을걸 類
- (3) 담화 기능에 따른 억양의 실현: -아라/어라 類

2. 억양 교육의 전형적인 교수 방식(Chun 2002)

- 민감화(sensitization, 듣기 연습)
- 설명(explanation, 가능하다면 모국어와의 비교도 포함해서)
- 모방(imitation, 통제된 말하기 연습)
- 연습 활동(practice activities, 반복적인 말하기 활동)
- 의사소통적 활동(communicative activities, 즉석에서 하는 말하기 활동)

3. 억양 교육의 실제-“-다면서, -라면서”의 억양 배우기

(1) 설명·제시 단계

“-다면서, -라면서”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확인하기 위해 묻거나, 대화 상대자가 앞에 한 말과 다른 뜻으로 말했을 때 약간 반박하는 의미로 다시 물을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두 의미는 억양이 다릅니다.

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확인하여 물을 때에는 / 억양을 사용하여 말합니다.

가: 내일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다면서? (/)

나: 응. 빨리 만나고 싶어.

② 대화 상대자가 앞에 한 말과 다른 뜻으로 말했을 때 약간 반박하는 의미로 다시 물을 때에는 \ 억양을 사용하여 말합니다.

가: 여기가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집이야.

나: 그래? 한번 먹어 보고 싶다.

가: (장소를 옮겨) 여기도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집이야.

나: 아까 거기가 제일 맛있는 집이라면서.(\\)

(2) 모방 단계

연습 1. 확인의 의미가 들어 있는 대화입니다. 억양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1) 가: 고향이 제주도라면서?(↗)

나: 응, 거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다녔어.

2) 가: 이번 방학에 어학연수 간다면서?(↗)

나: 뭐라고? 돈이 있어야 가지.

연습 2. 반박의 의미가 들어 있는 대화입니다. 억양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1) 가: 오늘 친구랑 영화 보기로 했어. 같이 갈래?

나: 너 내일이 시험이라면서?(↘) 어떻게 영화를 보러 가니?

2) 가: 우리 주말에 놀러 갈까?

나: 너 다음주에 시험 본다면서?(↘) 놀러 갈 시간이 있겠어?

(3) 연습 단계

<억양 표시하기>

연습 1. 다음을 듣고 억양을 ↘나 ↗로 표시해 보세요.

1) 가: 오랜만이다.

나: 그래 진짜 오랜만이다. 너 다음달에 결혼한다면서?()

가: 응, 그때 시간 되면 꼭 와 줘.

2) 가: 약, 우리 여기서 뭐 좀 먹고 가자. 배고파 죽겠다.

나: 너 한 시간 전에 밥 먹었다면서?() 벌써 배가 고파?

가: 뱃속에 거지가 있나봐.

3) 가: 민수야 너 아프다면서?() 괜찮니?

나: 응, 약 먹었더니 좀 괜찮아. 웬일이야?

가: 내일 서점에 같이 갈까 하고.

나: 그래, 같이 가자.

가: 너 아프다면서?() 갈 수 있겠어?

<적절한 억양으로 대화하기>

연습 2. 다음을 대화의 의미에 맞는 억양으로 읽어 보세요.

가: 이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다면?

나: 어, 나도 지난주에 봤는데 진짜 재미있더라.

가: 그래? 그럼 나도 내일 친구랑 같이 보러 가야겠다.

나: 나도 같이 가자.

가: 넌 봤다면?

나: 그래도 또 볼래. 정말 재미있거든.

가: 내일 친구 생일이라면서? 거기 안 가도 돼?

나: 아, 그렇구나. 잊어버리고 있었네.

<발음 진단지 1>(초급 학생용)

이름 _____ 사용 언어 _____

1.

- ① 거기 모기 부모 고기 머리 오이 메아리 매미
- ② 이야기 여기 요리 유리 야구 겨우 교수 휴가
- ③ 바위 왜 의자 더워요 나와 외워요
- ④ 우유가 차가워요.
- ⑤ '여유'가 뭐예요?
- ⑥ 왜 교과서를 외워요?
- ⑦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요.
- ⑧ 귀 위에서 모기가 웅웅거려요.

2.

- ① 바다 대학 감기 사고 시간 자기 금
- ② 빨리 바빠요 또 어때요 까때요 어깨 싸요 날씨 찌개 이쪽
- ③ 과리 소포 타요 교통 치마 우체국 코 조카
- ④ 거리 바로 무료 길 주말 열 빨리 몰라요 걸려요
- ⑤ 하나 혼자 향기 화요일 시험 전화 영화 결혼
- ⑥ 담배 순두부 구경 침대 감기 준비 친구 공부 명동
- ⑦ 밥 곧 밭 옷 빗 꽃 책 부엌
- ⑧ 너무 바쁘고 피곤해요.
- ⑨ 버스를 또 타야 돼요?
- ⑩ 사과가 싸서 많이 샀어요.
- ⑪ 이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 ⑫ 키 크고 까만 바지 입은 분이 누구예요?

3.

- ① 한국어 영어 학생 학기 입국 입맛 작년 운동화
- ② 등록 음료수 신랑 설날 같이 붙여요 좋아요 싫어요
- ③ 사진을 찍을 때는 웃으세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못 오면 전화해.
- ⑤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같이 먹어야지.
- ⑥ 눈을 감고 이 음료수를 마셔 보세요.
- ⑦ 어떻게 연락하면 되지요?
- ⑧ 강남 역 근처는 너무 길이 막혀서 싫어요.
- ⑨ 일 년 동안 비빔밥만 먹었어요.
- ⑩ 날씨가 좋아서 사진이 아주 잘 나올 거 같아요.
- ⑪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발음 진단지 2> (중급 학생용)

이름 _____ 사용 언어 _____

1.

- ① 혼자서 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세요.
- ② 여러분, 내일 오후에 모두 부모님과 함께 오세요.
- ③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 ④ 그저께 처음 이사 와서 근처에 뭐가 있는지 아직 잘 몰라요.
- ⑤ 이번 연휴에 병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해요.
- ⑥ 이제 저희 집에 거의 다 왔어요.
- ⑦ 왜 혼자 해외여행을 가요?
- ⑧ 웬일인지 교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2.

- ① 두부가 건강에 좋아요.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거 보세요.
서점에서 사전을 샀어요.
중요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요.
- ② 밥이 좋아요, 빵이 좋아요?
발목을 빼어서 아파요.
파란색, 빨간색 모두 필요해요.
두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먹었어요.
뜨끈뜨끈한 갈비탕을 드세요.
샤워하고 시원한 물을 마세요.
몸살이 나서 온몸이 쭈셔요.
아저씨, 저 아가씨는 누구예요?
짜증내지 마세요.
사진 참 잘 찍었어요.
그저께는 어디 갔었어요?
코가 기니까 코끼리지요.
- ③ 일요일에 놀이공원에 가려고 해요.
“빨리”와 “얼른”이 달라요?
과일 다 팔렸어요?
모이는 날을 팔월 팔일로 하지요.

- ④ 호수에 비치는 하늘이 예뻐요.
‘전화번호 좀 알려 줘’라는 노래가 유행이에요.
- ⑤ 운동하고 우동 먹고 한강에 갔어요.
청소를 안 해서 집이 엉망진창이야.
선생님과 명동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 ⑥ 밥부터 먹고 하면 늦겠지요?
약속 꼭 지키세요.
곧장 가면 바로 앞에 꽃집이 있어요.

3.

- ①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못 오면 전화하세요.
- ②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같이 먹어야지.
콧물이 자꾸 나와서 못 먹겠어요.
- ③ 눈을 감고 이 음료수를 마셔 보세요.
이 비행기는 곧 착륙하겠습니다.
- ④ 강남 역 근처는 너무 길이 막혀서 싫어요.
- ⑤ 일 년 동안 비빔밥만 먹었어요.
- ⑥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정리한 책이에요.
- ⑦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집에서 중국 요리 먹으면서 한국 영화 보는 거 어때?
- ⑧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4.

- ① 가: 오래 기다렸어요?
나: 아니요, 별로 안 기다렸어요.
- ② 가: 뭐 마실래?
나: 난 오렌지 주스 마실래.
- ③ 가: 커피 마실래, 주스 마실래?
나: 난 주스 마실래.
- ④ 가: 주말에 같이 시내 구경 가자.
나: 또? 이번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쉬자.
- ⑤ 가: 이 과자 한번 먹어 봐. 맛이 어때?
나: 이거 굉장히 맛있다!
가: 맛있지? 내가 직접 구운 거다.

<발음 진단지1>(교사용)

1. 모음

| | |
|----------------------------|---|
| 단모음 | ① 거기 모기 부모 고기 머리 오이 메아리 매미 |
| 이중모음 (야 여 요 유) | ② 이야기 여기 요리 유리 야구 겨우 교수 휴가 |
| 이중모음 (와 워 웨 왜 외 위 의) | ③ 바위 왜 의자 더워요 나와 외워요 ④ 우유가 차가워요. ⑤ '여유'가 뭐예요? ⑥ 왜 교과서를 외워요? ⑦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요. ⑧ 귀 위에서 모기가 웅웅거려요. |

2. 자음

| | |
|----------|-----------------------------------|
| ㅂ ㅅ ㅈ ㅊ | ① 바다 대학 감기 사고 시간 자기 급 |
| ㅃ ㅆ ㅉ ㅑ | ② 빨리 바빠요 또 어때요 까매요 어깨 싸요 날씨 찌개 이쪽 |
| ㅍ ㅌ ㅊ ㅋ | ③ 파리 소포 타요 교통 치마 우체국 코 조카 |
| ㄹ | ④ 거리 바로 무료 길 주말 열 빨리 몰라요 걸려요 |
| ㅎ | ⑤ 하나 혼자 향기 화요일 시험 전화 영화 결혼 |
| 받침 ㅂ ㄷ ㄱ | ⑥ 밥 곧 발 옷 빛 꽃 책 부엌 |
| 받침 ㄴ ㄷ ㄹ | ⑦ 담배 순두부 구경 침대 감기 준비 친구 공부 명동 |
| ㅂ ㅃ ㅍ | ⑧ 너무 바쁘고 피곤해요. |
| ㄷ ㄸ ㅌ | ⑨ 버스를 또 타야 돼요? |
| ㅅ ㅆ | ⑩ 사과가 싸서 많이 샀어요. |
| ㅈ ㅉ ㅊ | ⑪ 이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
| ㄱ ㄲ ㅋ | ⑫ 키 크고 까만 바지 입은 분이 누구예요? |

3. 규칙

| | |
|---------------------|---|
| 연음, 경음화, 비음화, ㅎ약화 | ① 한국어 영어 학생 학기 입국 입맛 작년 운동화 |
|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ㅎ탈락 | ② 등록 음료수 신랑 설날 같이 붙여요 좋아요 싫어요 |
| 연음 | ③ 사진을 찍을 때는 웃으세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못 오면 전화해. |
| 비음화, 경음화, 구개음화, 연음 | ⑤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같이 먹어야지. |
| 연음, 경음화, 비음화 | ⑥ 눈을 감고 이 음료수를 마셔 보세요. |
| 유기음화, 유음화 | ⑦ 어떻게 연락하면 되지요? |
| ㄴ첨가, 유기음화, ㅎ탈락 | ⑧ 강남 역 근처는 너무 길어 막혀서 싫어요. |
| 유음화, 경음화, 비음화, 연음 | ⑨ 일 년 동안 비빔밥만 먹었어요. |
| ㅎ탈락, 유음화, 경음화, 연음 | ⑩ 날씨가 좋아서 사진이 아주 잘 나올 거 같아요. |
| 경음화, 비음화, ㅎ약화, 연음 | ⑪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

<발음 진단지 2>(교사용)

1. 모음

| | |
|-------------|---|
| 단모음 이중모음 | ① 혼자서 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세요. ② 여러분, 내일 오후에 모두 부모님과 함께 오세요. ③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④ 그저께 처음 이사 와서 근처에 뭐가 있는지 아직 잘 몰라요. ⑤ 이번 연휴에 병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해요. ⑥ 이제 저희 집에 거의 다 왔어요. ⑦ 왜 혼자 해외여행을 가요? ⑧ 웬일인지 교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
|-------------|---|

2. 자음

| | |
|------------|--|
| ㄷ ㄸ ㄱ | ① 두부가 건강에 좋아요.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거 보세요. |
| ㅅ ㅆ | 서점에서 사전을 샀어요. 중요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요. |
| ㅂ ㅃ ㅍ | ② 밥이 좋아요, 빵이 좋아요? 발목을 빼어서 아파요. 파란색, 빨간색 모두 필요해요. |
| ㄷ ㄸ ㅌ | 두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먹었어요. 뜨끈뜨끈한 갈비탕을 드세요. |
| ㅅ ㅆ | 샤워하고 시원한 물을 마셔요. 몸살이 나서 온몸이 쭈셔요. 아저씨, 저 아가씨는 누구예요? |
| ㅈ ㅉ ㅊ | 짜증내지 마세요. 사진 참 잘 찍었어요. |
| ㄱ ㄲ ㅋ | 그저께는 어디 갔었어요? 코가 기니까 코끼리지요. |
| ㄹ | ③ 일요일에 놀이공원에 가려고 해요. “빨리”와 “얼른”이 달라요? 과일 다 팔렸어요? 모이는 날을 팔월 팔일로 하지요. |
| ㅎ | ④ 호수에 비치는 하늘이 예뻐요. ‘전화번호 좀 알려 줘’라는 노래가 유행이에요. |
| 받침 ㅁ, ㄴ, ㅇ | ⑤ 운동하고 우동 먹고 한강에 갔어요. 청소를 안 해서 집이 엉망진창이야. 선생님과 명동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
| 받침 ㅂ, ㄷ, ㄱ | ⑥ 밥부터 먹고 하면 늦겠지요? 약속 꼭 지키세요. 곧장 가면 바로 앞에 꽃집이 있어요. |

3. 규칙

| | |
|--------------------|---|
| 연음 | ①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못 오면 전화하세요. |
| 연음, ㅎ약화 | |
| 비음화, 경음화, 구개음화, 연음 | ②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같이 먹어야지. כות물이 자꾸 나와서 못 먹겠어요. |
| 비음화, 경음화 | |
| 연음, 경음화, ㄹ비음화 | ③ 눈을 감고 이 음료수를 마셔 보세요. 이 비행기는 곧 착륙하겠습니다. |
| 비음화, 유기음화 | |
| ㄴ첨가, 유기음화, ㅎ탈락 | ④ 강남 역 근처는 너무 길이 막혀서 싫어요. |
| 유음화, 경음화, 비음화, 연음 | ⑤ 일 년 동안 비빔밥만 먹었어요. |
| ㅎ약화, 유음화, 비음화, 연음 | ⑥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정리한 책이에요. |
| ㅎ약화, 비음화, 연음 | ⑦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
| 연음, 비음화, ㅎ약화 | ⑧ 집에서 중국 요리 먹으면서 한국 영화 보는 거 어때? |
| 구개음화, 비음화, 연음 | ⑧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

4. 억양

| | |
|------------|---|
| 의문사 없는 의문문 | ① 가: 오래 기다렸어요? 나: 아니요, 별로 안 기다렸어요. |
| 평서문 | |
| 의문사 있는 의문문 | ② 가: 뭐 마실래? 나: 난 오렌지 주스 마실래. |
| 평서문 | |
| 선택의문문 | ③ 가: 커피 마실래, 주스 마실래? 나: 난 주스 마실래. |
| 청유문 | ④ 가: 주말에 같이 시내 구경 가자. 나: 또? 이번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쉬자. |
| 명령문 | ⑤ 가: 이 과자 한번 먹어 봐. 맛이 어때? 나: 이거 굉장히 맛있다! |
| 감탄문 | 가: 맛있지? 내가 직접 구운 거다. |

<주요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성규·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서울대 언어교육원(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①②, 랭기지플러스.
 이익섭(2000), 국어학개설(개정판), 學研社.
 이진호(2005), 국어음운론강의, 삼경문화사.
 이호권·고성환(2007), 맞춤법과 표준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허용·김선정(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태학사.
 Chun, D. M.(2002), *Discourse Intonation in L2: From theory and research to practice*, Amsterdam: Benjamins.